경향신문 기사 프린트 페이지 인쇄하기

"나카소네 '국제 책임' 강조 후 일본 급속 보수화"

· 서울대 장인성 교수 인터뷰

일본 정치사상 전공자인 장인성 서울대 교수(53)는 보수는 전후 일본을 이해하는 유력한 매개라고 말한다. 「전후 일본의 보수와 표상」의 책임연구자인 장 교수의 얘기를 들어봤다.

-전후 일본의 보수성에 주목한 것은.

"보수화, 우경화를 말하지만 전후 일본 지식계는 평화운동, 교육운동 등 진보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런데 80년대 '국제화'와 '국제 책임'을 강조한 나카소네 내각을 기점으로 진보가 몰락하기 시작했다. 보수는 상대적 우위를 점하게 됐고, 점점 일상의 영역으로 넓혀오고 있다."

-우익 대신 보수라는 개념을 쓴 것은.

"우익이라고 하면 범위가 좁아진다. 정치인들의 망언이 나오는 시점, 상황 등을 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 과제이지만, 그런 정치적 행동이 나오는 기반을 보고 싶었다."

-전후체제의 측면에서 일본 보수를 설명하면.

"보수의 심리는 전후 일본의 국가와 사회를 보는 보수지식인들의 불안감에서 나온다. 불안의 원인은 일본사회가 공동체적 윤리와 국가 의식을 상실했다는 판단, 미·일 안보동맹과 평화헌법이라는 제도와 진보주의(=근대주의)라는 이념으로 치장된 전후 체제가 이를 초래했다는 인식이다."

-일본인들이 한국인보다 더 보수적인가.

"일본 사람들은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새로운 것이 나오기 어렵다. 확실한 것만 추구해왔기 때문에 변화에 익숙하지 않다. 또한 일본 사람들은 규칙이 있으면 지켜야지 지키지 않으면 불안해 한다. 반면 한국 사람들은 뭐든 오랫동안 두고보지 못하고 잘 바꾸는 편이다. 일본의 제조업 강세, 한국의 IT산업 강세는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 않나 한다."

-일본 사회가 그만큼 안정화되었다는 뜻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측면도 있다. 하지만 보수는 에도시대 때부터 굳어진 문화이기도 하고, 문학적 낭만주의의 전후적 재현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손제민 기자>

입력 : 2010-04-30 17:58:31 | 수정 : 2010-04-30 23:49:13

Copyright©The Kyunghyang Shinmun, All rights reserved.